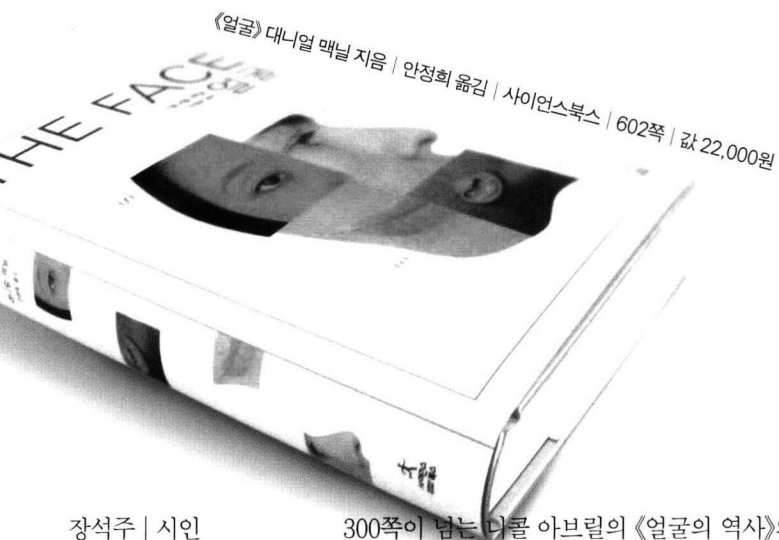


얼굴, ___ 겉과 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체



장석주 | 시인

300쪽이 넘는 니콜 아브릴의 《얼굴의 역사》와 600쪽이 이르는 대니얼 맥닐의 《얼굴》은 겹쳐 읽으면 좋은 책들이다. 두 권을 합치면 900쪽이 넘는데, 두께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두 권 다 비교적 쉽게 잘 읽힌다. 두 권의 책은 '얼굴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면서도 탐구의 범주가 겹치지 않고 상보적이다. 전자의 책이 얼굴에 대한 통시적 고찰로, 최초의 예술작품인 고대 이집트의 그림과 그리스의 조각상들과 성화聖畵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화자들의 초상화, 20세기 말의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신화와 예술, 철학과 문학 등에서 끊임없이 변장·변신해 온 얼굴의 미스터리 역사를 추적한다면, 후자의 책은 얼굴에 대한 공시적이며 해부학적인 탐색의 기록으로 얼굴의 구조와 특징, 의사소통 능력, 아름다움에 대한 범주를 포괄한다. 전자의 책에는 인문학적 지식과 통찰력이, 후자의 책에는 얼굴의 해부학적인 사실들을 잘게 쪼개 탐사하며, 그 형태적 특징들을 절단하고 계측하는 냉철함이 돋보인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쩍 얼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욕구의 한 변형일 것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잘 생긴 얼굴, 예쁘고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인 '얼짱'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때 얼굴은 타자를 향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분증'이며 '등대'이고, '사랑하는 것인 동시에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겉으로 뿔뿔이 드러내는 것'으로 감추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하다. 니

콜 아브릴은 얼굴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 깃발이면서 내 고통이다." 본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날의 삶과 함께 새로 씌어진다. 어디 그뿐이라. 얼굴에는 그 주체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삼라만상의 생동하는 기운의 움직임이 날날이 내비친다. 관상술이란 얼굴에 떠오른 천기天氣와 개인의 운명을 읽어내는 비술秘術이다. 니콜 아브릴은 이렇게 쓴다. "얼굴은 인간과 더불어 태어났다. 얼굴은 언제나 존재했고 어느 곳에서나 있었다. (중략)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인간의 모순 덕분에 얼굴은 본질과 표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겉과 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체가 되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얼굴을 갖고 산다. 가상세계의 경험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얼굴은 다름과 차이를 전제로 존재의 유일성과 실재를 담보하는 기호다. 그것이 없다면 네오와 모피어스를, 이효리와 전지현을, 당신과 옆집 아줌마를 어떻게 구분하고 알아 볼 수 있을 것인가? 얼굴은 보이는 것이고, 그 가시적 실체를 근거로 우리는 타인과 소통한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자아를 드러내는 기표적 표면이다. 얼굴이 그 이면에 숨은 욕망, 내적 기질, 외상성外傷性 기억들, 삶의 고단한 역정歷程들을 파열하듯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말은 옳다. 수많은 화가들이 얼굴을 제 그림의 대상으로 삼고, 사진작가들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갖가지 얼굴을 찍었다. 아니, 사진은 그 발생론적 근거가 애초부터 얼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보들레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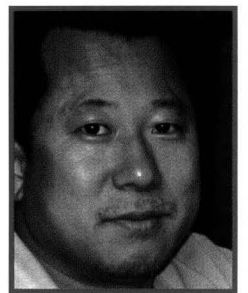
시인의 직관으로 사진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추잡한 세상은 나르시스가 된 것처럼 차가운 금속에 새겨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떼지어 몰려들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자화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초상화를 남겼다. 고흐만이 아니다. 렘브란트, 피카소, 몽크, 모딜리아니, 캐테 콜비츠, 프리다 칼로 등등 우리가 아는 수없이 많은 화가들이 얼굴을 그렸다. 나는 꽤 오랫동안 화가들이 왜 그토록 얼굴에 집착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어왔다. 유한하고 가변적인 것에 영속성을 부여하려는 화가들의 허영심 때문인가? 혹은 예술가들이 불가피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허망한 나르시시즘 때문인가? 나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모호하게 키워왔다. 거울 속에 비치는 얼굴은 거울을 떠나는 순간 사라진다. 거울 속의 상은 실재를 반영하지만 끊임없이 사라져 가는 실재다. 거울 속의 얼굴은 형태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미지이며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초상화는 시간이 퍼붓는 소멸의 폭력을 견뎌내며 반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거울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속성을 지닌다.

사람의 얼굴은 저마다 다르다. 대니얼 맥닐이 “유사성은 자아를 한 꺼풀 벗겨 낸다. 유사성은 형태인 동시에 느낌이며 강력한 인력이다. 따라서 얼굴은 미술사에서 가장 지속성이 있고 중요한 이미지가 되어 왔다”고 할 때 얼굴은 화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동일한 카테고리 속하는 객체”임을 드러낸다. 대니얼 맥닐은 초상화에 대해 이렇게 쓴다. “초상물은 언제나 영원성을 암시해 왔다. 초상물은 망각에 대한 비웃음을, 죽음 이후의 잔인한 공허에 대한 승리를 약속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멸과 망각을 넘어서려는 노력과 영원성에 대한 무의식의 욕망이 초상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기억이 지닌 부실함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인생의 뜻깊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욕망과 닮아 있다. 인간의 기억은 늘 시간의 파괴성을 넘어서는 영속성에 대한 의미심장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 실패했으며, 그럴수록 화가들은 사실의 재현에 강박증적으로 매달렸던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까닭에 안 반 아이크와 같은 화가는 초상화를 그릴 때 엄밀한 기하학적 구도 속에서 인물의 특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평면에 재현해 냈던 것이 아닐

까? 반 아이크는 초상화의 대상 인물을 지겨울 정도로 꼼꼼하게 관찰하고 피부결, 주름살, 핏줄, 여드름, 털의 수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낸다. 그에게 얼굴은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다. 얼굴은 다만 “겉모습”이고, “인간적이고 우연한 결합”일 뿐이었던 것이다.

초상화가들이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형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늘 모사와 창조적 변형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으로 물질의 표면과 현실의 형태 속에 숨어 있는 본질을 드러내려는 예술가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얼굴은 얼마나 다양한 표정들을 갖고 있으며, 그 표정 너머에 얼마나 다양한 본질을 은닉하고 있었는가! 사람의 얼굴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 근육이 22개나 있는데, 이것은 지구상에 어떤 다른 동물보다 많은 숫자이다. 이 얼굴 근육들은 뇌에서의 자극에 따라 재빨리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대니얼 맥닐은 이렇게 쓴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과 다섯 시간 동안 인터뷰한 테이프를 가지고 과학자들은 거의 6,000개의 표정을 구분해 냈다. 즉, 3초마다 새로운 표정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네덜란드의 화가 아르튀를 엘세나르는 뒤센이 했던 것처럼 얼굴 근육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32분짜리 비디오테이프에서 4,096개의 표정을 찾아냈다. 0.5초마다 하나 꼴인 셈이다.(중략) 표정의 단계적 변화, 표정의 혼합과 변형, 감정의 강약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총계는 측정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얼굴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의 다양함은 결국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표정이라는 가면으로 그 속내와 본질을 감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얼굴을 통해 구현하는 미시 정치는 감춤을 근거로 한다.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증명하듯이 더 많이 감추는 얼굴이 주체의 이익을 보존하고 권력을 강화한다. “타인의 얼굴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사람이 지배적 위치에 있듯이,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피지배적 위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니콜 아브릴은 말한다.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려는 얼굴은 항상 자아와 욕망을 얼굴의 이면으로, 그 심층으로 더 많이 숨기는 법이다. ❧



★ 이 글을 쓴 장석주는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청하출판사 편집인·발행인을 역임했고, 이후 계속해서 책 만드는 일을 해왔다. 청하출판사 시절에 계간〈현대시세계〉와 〈현대예술비평〉을 펴내며 기획과 편집을 맡았고 월간〈현대시〉, 계간〈시인세계〉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며 신문과 잡지 등에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현재 동덕여대 인문학 부 môn예창작과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햇빛사냥》, 《원전주의자의 꿈》, 《그리운 나라》, 《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를 비롯해 다수의 시집을 냈으며 최근 독서일기 형식의 〈강철로 된 책들〉을 출간했다.